

하나로마트 지역 주민들과 마찰

순창군농업협동조합 해당마트 건물 진입로 주변 주차문제로 큰 불편 겪어

순창군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최근 매장 인근 주민들과 주차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순창군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변 거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주차관련 마찰의 발단은 지난 설 연휴기간에 발생했다.

문제는 농협 하나로마트측이 설 연휴기간에 해당마트 건물 진입로 주변에 직원을 동원해 도로상에 인근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주차문제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측이 지난 설 연휴기간 마트 외부에 개

설되어 있는 고객주차장이 쇼핑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민차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자 인근 주민들의 차량을 마트 주변 진입로 등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지시설물(주차콘)까지 설치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지속해 주변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트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A모(순창읍)씨는 "평소 마트 고객층은 우리 지역 농업인이 대부분이며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주민이 대다수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수익을 환원해야 할 순창농협 하나로마트가 오직 자 기관의 수입에만 몰두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이기적인 행태를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호소했다.

또한 순창농협 하나로마트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B모(순창읍)씨는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주차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가게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영업에 대한 손실이 작지 않다"고 호소했다.

반면, 순창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며 사실을 반박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일자리 창출·도심 활성화 나서

남원시, 빈집·빈점포 활용 창업 유도... 5억원 나눠 지원

도시재생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가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창업을 유도해 구도심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몰이에 나섰다.

올해 시행하는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은 남원 도시재생 사람나눔(마을카페·공방) 사업으로 주민참여 소득사업으로 발전시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안이다.

대상지역은 동충동·죽향동·금동 일대(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로 주민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업종은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모든 소득사업으로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임대료(자부담 10% 필수), 임대료 인상 억제 유도를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에 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월 28일(오후 6시 30분) 남원문화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서 다운로드 받고 신청은 3월 말까지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지원팀(8개팀)이 결정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린상권 재생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까지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람나눔(마을카페·공방) 사업은 향후 3년 동안 총 5억원을 나누어 지원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 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버스 3월 1일 운행

남원과 인천국제공항 간 직통 리무진 버스가 3월 1일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순창, 구례, 함양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지난 2월 중 인천공항 노

선개통을 추진하였으나, 노선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에서 운수업체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개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운수업체간 협의가 마무리 되어 3월 1일부터 인천공항 직통 리무진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원과 인천공항을 하루에 4번 왕복

하는 리무진버스의 운행요금은 29,5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남원시의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직통 운행한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보름 맞이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남원시, 기풍제·풍물놀이 등 볼거리·놀거리 제공

남원시에서는 새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름다운 요천 둔치를 배경으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제17회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남원청소년육성회(회장 이종규)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실은 오색 연을 하늘 높이 띄우며 2018년 한 해 동안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바람을 기원하는 기풍제(祈風祭)를 시작으로 풍물놀이, 각종 민속놀이를 함께 열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현장접수를 통하여 진행된 이번 대회는 25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연의 창작성, 높이뛰우기, 재주부리기 등 심사항목에 따라 기량을 겨루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돌입

임실군이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상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에 돌입했다.

군 보건의료원은 임실읍을 시작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상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이동 건강검진은 지역가정자 중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정자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검진대상자에 대해 실시한다.

1차 검진항목은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등 신체계측과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사 등이다.

군은 읍면 이동건강검진 시 국가 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검진을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의 협진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비



를 지원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계획이다.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자 확진자(당뇨, 고혈압 등)로 판정될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검진 당일엔 8시간 공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순창군, 병해충방제협의회 개최

순창군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갈색날개매미충 부화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2일 병해충방제협의회를 개최해 적기 약제공급에 나섰다.

이날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방제대책, 방제 약제 선정 등 효율적인 방제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4월 중순까지 방제 약제를 농가에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갈색날개매미충 약충이 5월초 부화하기 이므로 적기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성충으로 자라 방제가 어렵고 8월 산란으로 연계되어 다음해에 수십배로 증가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취해진 조치다. 특히 부화시기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이 멀리 날지 못해 방제효과도 높다.

군은 농가에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순창의 주 소득작목인 블루베리 매실 등 23작목 79ha에 대해 5월초부터 공동방제를 실시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약제가 공급되면 바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유실수 전정시 산란된 가지는 알이 부화되지 못하도록 태워서 없애줄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7월말 적용약제를 2차 공급하고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유도해 밀도를 낮추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미래정책연구원 전문가초빙 컨설팅 실시

남원시가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19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문화강화 및 이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그동안 성과지표 선정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데 이어, 이번 컨설팅은 교육 이후에 부서별로 자체 선정된 예비 지표들에 대한 발전성, 효과성, 경제성, 실용성등을 심층 분석하여 2018년도 남원시 성과지표로 확정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원시 비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과 부합하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도출을 위하여, 시에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공약사업, 각종 지시사항, 지자체 합동평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앞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인 시정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